

앗! 붙었다!

학년 반 이름

★ 세 박자 친구들은 칠판에 붙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세 박자 친구들처럼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인가요? 혹은 누군가와 마음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요? 누구와 어디에 붙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해봅시다.

<그림으로 표현하기>



★ 함께 붙은 사람(들)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?
